

제98회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2년 9월 2일 상오 10시 20분
2. 폐 의 : 단기 4292년 9월 2일 하오 3시 10분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5. 출석의원 : 의원(재적) 16명 중 14명
결석 강영락, 김남진 의원
6. 출석공무원 :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
교육감 박세문 및 각 과장

7. 의사일정

◆보고사항

- (1) 제 97회 제1차 회의록 통과
- (2) 의원 관외 출장결과 보고
- (3) 도정업자 대 노동조합 간 분규사건 처리 결과보고
- (4) 강영락의원 부의장직 사표 수리 상황보고

◆부의안건

- (1)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
- (2) 단기 4292년도 제2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8. 토의사항

◎ 제97회 제1차 회의록 통과

◇서기 박 찬 대

- 낭독
- 이의없음으로 통과

◎ 제97회 제2차 회의록 통과

◇서기 박 찬 대

- 낭독
- 이의없음으로 통과

◇김 상 대 의원

- 전차회의의 비공개회의에서의 결의 교육위원회 관계로 도와 중앙에 출장한 바 있으나 이 결과 역시 비공개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요지의 발언

◇김 경 인 의원

- 비밀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하나, 저반 주간 항도 지상에 모 의원이 담화발표한 것을 보았는데 이제와서 비공개석상 보고 운운은 자가모순이며 이 해난이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신문지상에 담화발표 운운은 언어도단이며 사실은 귀임후 모 기자의 유도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하였을 따름이다.

◎ 도정업자 대 노동조합 간 분류사건 처리 결과보고

◇김 경 인 의원

- 상공회의소 주최로 3자 합동 그 조절에 노력하였으나 상호 상반된 의견으로 왈가왈부하다 산회하였다.

본의원의 소감으로는 그 이면에 정치성이 개재되었다고 보아져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현금(現今) 보류중이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.

◎ 강영락 의원 부의장직 사표 수리 상황보고

◇의장 김 삼 성

- 휴회기간중 사표가 접수되었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.

◇김 상 태 의원

- 저번 민주당 시당대회 당시 당일 대회장소인 호남동 전남정미소 부근을 동 직원들이 배회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 바 집무시간중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처사를 하였음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동장들이 파출소주임을 대동하고 민주당원 가정을 방문하고 협박한 사실 등이 있었음은 용인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참고로 보고하는 바이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이 문제는 야당의 연차대회에 동 직원들이 참석하였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협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직권남용을 자행한 것이라 규정짓겠다.

이 사건이 있는 직후 본의원은 부시장을 방문하고 이에 대한 진상을 말하였는 바 조사하여 답변하겠노라는 약속을 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며 감사권을 가진 우리 의결부로서도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이다.

그리고 이러한 부류들은 헌법을 위시한 각종 법률에 배치된 행동을 하였다고 규정지어야 할 것이다.

시장은 이를 강력한 조치로서 임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지며 첨가하여 보고하는 바입니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이 문제는 금차 회기의 의사일정의 보고사항에도 없는 것으로서 대 행정부 질의인지 보고사항인지 그 한계를 명백히 하여주기 바란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부의 안건 상정 선언

◇정 응 표 의원 긴급동의

- 근자 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거니와 수산센터를 의원불(外援弗-외국 원조)로 금년도에는 여수에 설치하고 #년도에 당 시에 설치기로 추진중이라 하며 우리측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목포시가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될 지도 모른다 하오니 이의 뒷받침으로는 1,000평 가량의 부지제공이 필요하다 하온 바 우리 시에도 이의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될 것으로서 우선 우리 시의 회의 결의로서 중앙 요로에 건의문을 제출키고 하고 문안작성은 사무국에 일임키로 할 것을 긴급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김상태의원과 김경인 의원의 발언은 우리의회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보아지며 민주당대회가 끝난 뒤 동 직원들의 말을 들으면 정중섭, 유옥우 의원의 시국강연을 청취차 간 일은 있다고 하니 이것이 무엇이 나쁘겠는가.

그리고 목포시는 점차 수산기지화되어가고 있는 바 서남수산이 목포에 근거를 두고 수산개발에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요지음 남양수산이 또 한 우리 목포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바 우리 시의회의 결의로써 남양수산사장에게 감사장 부여할 것을 긴급 동의

※ 표결 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의장 김 삼 성

의사일정에 없는 사건이라도 돌발적인 안건은 보고하는 것이 타 의회의 예로도 되어있는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의장의 말은 돌발적인 사항은 보고할 수 있다고 하나 그러한 사건이라도 일응 후환에 내걸어야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.

그리고 김상태 의원의 발언은 대 집행부 질의가 아닌가.

◇김 경 인 의원

- 의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.

◇정 응 표 의원

- 금차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전반 시정감사를 통하여서나 전차 의회 시 심의한대로 한 것이며 우리 의회의 범병회기 일수도 12월 정기회의를 빼 놓으면 10일간 밖에 안남은다 하오니 이번 회기 3일간을 1일간으로 단축하여 진행토록 하고 부의안건 1, 2항을 해당 상위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었음.

◇김 창 희 의원

- 찬성발언

※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김 경 인 의원

- 김상태 의원과 본 의원 발언한 것을 보고사항이 안된다는 이유로 왈가왈부하였으나 시민들은 이문제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.

여러 의원들은 이 점 특단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의 결의로써 그 진상 즉 동 직원들의 범법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조사위원 5인정도 구성 조사토록할 것을 긴급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었음.

◇김 성 균 의원

- 이 사건에 대하여 목일(木日-목포일보)의 게재내용을 보고 아연하였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.

그러나 첫째 민주당의 연차대회가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묻고 싶다. 허용하였다면 공무원이라도 방청할 수 있지 않겠는가.

둘째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하나 소속 장(長)인 동장의 외출 허가는 받아

가지고 외출하였다면 그에 해당안되지 않겠는가.

셋째 동 직원들의 모기관의 밀령으로 이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조사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의 조사위원을 구성할 필요조차 없지 않은가.

넷째 오히려 이 문제는 여당 측에서 제기하여 그 대회에 참석한 동직원들의 성분을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.

◇조 양 순 의원

- 일반인의 방청은 문호를 개방하고 환경하였다. 그러나 민주당 대회에 동 직원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키 곤란하며 동 직원들이 오전 9시부터 대회장 부근을 배회하였다 함은 일종의 헐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. 민주당은 공산당이 아니다.

일응 집행부장의 조사내용을 청취키로 하자.

◇김 상 대 의원

- 동 직원들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시하나 본의원이 아는 견해로는 별정 직 공무원으로서 보수규정외에는 지방공무원령의 적용을 안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이의 사실 여부를 규명키 위하여 자유당 3, 민주당 2의 비율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찬동하는 바이다.

◇이 정 권 의원

- 찬성발언

◇김 상 태 의원

- 집행부장의 조사내용을 청취키로 하자,

◇이 부시장 답변

- 이 문제에 대하여는 민주당 소속 모 의원들로부터 말을 듣고 본인은 처음 아는 만큼 본인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, 타 기관이나 각 동장에게 지시유무를 직접 타진하여 보았으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하나이다. 그

래서 하부면에 들어가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관계로 아주 착수치 못하고 있으니 각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.

◇김 경 인 의원의 조사위원 구성 동의

※ 표결결과 재적14명중 가 7표 부결

◇김 삼 성 의장

- 오전 회의 중지선언 하오 12시 20분 현재

◇김 삼 성 의장

- 오후 회의 속개선언 하오 2시 40분 현재

※ 김상태, 박두순, 김경인 의원 불참, 재석 11명

◎ 내무분과위원회 종합심의 상황보고

◇의장 김 삼 성

- 교육위원회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문사위에서 이 정도 경종을 울렸으니 원안대로 넘겨주자는 심의를 거쳐 내무위에서도 원안 통과 하여주자는 결의를 보았습니다.

◇조 양 순 의원

- 의장의 종합심의보고에 문사위에서 전원 일치 무수정 통과하였다는 것 같은 보고를 하였으나 본의원은 빠졌으니 오해 없기 바라고 전차회의에서 문사위원회에서 양건 공히 비토할 적에는 수정할 개소를 시정하여 제안하도록 비토하여놓고 이제와서 원안대로 통과하여주자는 것은 전후 모순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.

◎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교위 결산 승인안

◎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교위 제 2회 추경예산안

◇의장 김 삼 성

- 정식 상정 선언

◇김 창 희 의원

- 이에 부수되는 인사문제와는 분리시킬 것을 원칙으로 하고, 1, 2항 공히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

◇이 정 권 의원

- 김상대 의원의 관외 출장 결과를 공개보고하라.

◇천 철 수 의원

- 김창희 의원 동의에 찬성 발언

◇김 상 대 의원

- 전반 교육청과 시내 각 국민학교의 전화불통된 것을 목격하였다. 이유를 알아본즉 전화료 체불에 기인하였으며 소영비 유용을 앓기 위해서라 했다. 이처럼의 애로를 통절히 느끼고 이번에 넘겨주기로 태도를 결정한 것이다. 출장 결과보고는 공개할 수 있다.

◇이 정 권 의원

- 결산승인안은 부득이 한 일이나 추경예산안은 예산자체가 모순이 개재하였다 하여 비토한 것이 아닌가. 이제와서 그대로 통과시키자함은 의회 자체의 모순이라 하겠으며 이제까지 교육 행정의 진공상태를 만들어 놓은 의의 책임을 여하히 하려는가.

◇의장 김 삼 성

- 교육감의 퇴임후 재등용 문제 및 제재방침에 대한 해명이 있었음.

※ 이정권 의원 퇴장 재석 10명

◇조 양 순 의원

- 박교육감은 일선교육자로서는 책임자라 하겠으나 교육행정가로서는 부적

당한 인물이다.

어찌하여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처사를 할려고 하며 부하직원의 인화도모에도 졸렬한 방침을 쓰려는가. 특히 북교국민교 직원의 좌천문제가 그 예라 하겠다.

그리고 목포교육청에서 도에 인사내신을 하여보았자 도당국의 하등 반응을 못 가져올 만큼 박 교육감의 위신은 낙지(落地-땅에 떨어짐)하고 만 것이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동의

※ 표결결과 재석 11명중 가 10표 가결

◇김 성 균 의원 긴급 동의

※ 김일섭 의원 퇴장 재석 9명

- 목포교육위원회 산하 각 국민학교는 생도 수에 비하여 교사수가 너무 근소하다. 이에 대한 증원 요청건의를 당 의회의 결의로써 관계당국에 제출할 것을 동의 재청...삼청

※명남철 의원 퇴장

◇의장 김 삼 성

- 재석 의원이 과반수 미만이니 교위 집행부는 차후 각 의원의 서면 결의를 받도록 하라는 요지의 발언

◇천 철 수 의원

- 교육위원회의 양 부의안건이 무난히 통과된데 대하여는 경하하는 바이나 현금 교육청 직원들의 직무태만성을 엿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폐회 선언

(하오 3시 40분 현재)

이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

단기 4292년 9월 3일

시의원 김 성 균

시의원 김 상 태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